

명퇴·물갈이... 시·도 '인사 태풍' 몰아친다

■ 광주시 산하 기관 임원현황

기관명	직위	성명	임기
도시공사	사장	홍기남	'14. 8. 4
	경영본부장	유광중	'14. 6. 12
	사업본부장	임성기	'14. 6. 12
도시철도	사장	이호준	'14. 10. 15
	경영본부장	정재수	'15. 3. 6
	기술본부장	홍인희	'15. 6. 6
김대중센터	사장	조병희	'15. 5. 8
환경공단	이사장	박화강	'16. 5. 27
	상임이사	정행중	'14. 11. 7
정보센터	대표이사	한영돈	'16. 8. 1
	대표이사	김중수	'15. 2. 24
한국 CES	본부장	김병국	'15. 8. 15
	원장	(공석)	
광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	(공석)	
	원장	김영민	'16. 8. 25
(재)남도 장학회	사무처장	이정관	'16. 8. 11
	대표이사	이영우	'15. 6. 9
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영우	'15. 6. 9
	원장	유동국	'16. 12. 20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신건수	'17. 5. 18
	기업지원단장	(공석)	
	자동차센터장	최천	'17. 3. 1
경제고용진흥원	원장	이상걸	'16. 4. 5
	신보재단	이사장	임영진
디자인센터	원장	장성근	'15. 2. 12
	사업본부장	(공석)	
정보문화진흥원	원장	김용관	'15. 11. 27
	5·18 기념재단	이사장	오재일
광주영아방송	상임이사	송선대	'15. 2. 9
	사장	김재규	'15. 4. 11
빛고을노인재단	본부장	김건우	'14. 12. 8
	원장	이홍의	'15. 2. 13
과학기술교류센터	원장	김경택	'15. 2. 8
	원장	최봉준	'17. 4. 27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	
	사무처장	(공석)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	'15. 4. 11
	사무총장	오미란	'15. 4. 11
그린카부품재단	원장	유영면	'14. 8. 15
	기후변화대응센터	센터장	정철용
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총장	김귀관	'15. 6. 10

■ 전남도 산하 기관 임원현황

기관명	직위	성명	임기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홍종희	'15. 7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	원장	신현경	'14. 9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연	'16. 8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주	'14. 9
(재)전남중소기업중앙회	(공석)	-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원장	정도영	'16. 7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박두규	'16. 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원장	이창용	'16. 3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원장	박영길	'16. 7
(재)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이건철	'15. 1
(재)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최순애	'16. 12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김형진	'16. 1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17. 1

광주시 3·4급 19명, 전남도 4급 이상 10여명 6월중 은퇴 새 수장 맞아 산하 기관장 교체도...역대 최대 승진·전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등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두툽한 층을 형성해 왔던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세대의 첫 은퇴(1955년생)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무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물밑 승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시·도 모두 새로운 수장이 취임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당선자와의 학연·지연·혈연 등 연결고리를 잡기 위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대규모 승진 인사에서 누락될 경우 승진기회가 그만큼 감소하는데, 앞으로 조직 내 승진 경쟁에서도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밖에 시·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시 올해 최소 3급 6석 빈다=올 6월(2014년 하반기)기준 3급 4명과 4급 15명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자리를 떠남에 따라 같은 규모의 승진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4급(서기관) 이상 간부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3급에서는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김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명예퇴직하고, 투자교육국장

은 현재 공석이다. 4급 과장급에서는 1955년 6월 이전생인 황신하 예산담당관, 윤상선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등 1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운영을 같이 하는 간부급 정무직인 이형석 경제부시장 과 최현주 비서실장, 유종성 대변인, 이경률 인권담당관 등도 조만간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2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퇴임 인사가 예고돼 있다. 1955년 7~12월생이 그 대상으로 3급에서는 정용준 의회사무처장과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이며, 4급에서는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주남식 문화수도정책관 등 최소 16명이 자리를 비운다. 이에 따라 간부직은 물론 하위직의 승진 인사도 대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보 인사도 관심이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 핵심부서의 간부직 자리이동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23개 기관 41명의 임원진도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 중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의 임기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임원진도 임기가 남아있지만 민선 5기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당수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6월에만 4급 이상 10명 떠난다=전남은 10년 만에 들어서는 새 도지사 '혁신'을 주장하고 나온 만큼 전남도의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안정'에 방점을 둘 경우 '선 인사 후 조직개편'을, '변화'를 우선할 경우 '선 조직개편 후 인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자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몸소 도정을 겪어본 뒤 조직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올해 하반기(6월) 공로연수 대상자는 2급(이사관) 배재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3급(부이사관) 이호경 여수부시장 등이다. 또 4급(서기관)은 신명수 보성부군수, 최희우 종합민원실장, 백중남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 김재홍 구례부군수, 정광덕 전남문예재단 사무처장, 박환기 공무원교육원장, 홍삼수 은퇴도사업담당, 최갑준 여수해조류박람회지원관 등 8명이다.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교체 폭도 관심거리다. 우선 신현경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김영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의 대인들이 합촌 바였네" 여름날 파초가 무성한 녹음을 이루어 그들의 시원함을 배풀 듯이 군주가 되면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김중서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저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에서 "시 가운데 탁물(托物)이란 마음이 지향하는 자세를 사물의 속성에 미루는 것으로 정초는 탁물을 파초에 두어 자신의 수양과 지혜의 자료로 삼았다"고 해석한다.

정초대왕은 그 마음을 담아 '파초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능력보다는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선임된 만큼 후임 도지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초대왕의 수준높은 회화미



(73) 역린(逆鱗)



정초대왕 작 '파초도'

얼마 전 관람했던 영화 '역린'은 400여 만명에 이르는 관객 돌파와 시대를 관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명대사로 화제를 모았다. '역린'은 정초대왕 암살미수사건인 '정유역변'이 모티브로, 영화 속에서는 침실 지붕 위의 암살자에 맞선 정초대왕의 무예를 현란하게 보여준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혁 군주였던 정초대왕은 학문·시·서예·그림에도 능했지만 탁월한 무인이기도 했다. 정초대왕에 빗대된 듯 배우 현빈의 진지한 연기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이어 여성 팬들의 '현빈왕이'를 도지게 할 것 같다.

정초대왕의 현군으로서의 자질은 세손시절부터 돋보였다. 세손은 섬돌 앞 파초를 보고 시 한 편을 쓴다. "정월에 고운 봄이 짙어지거나/초록 파초 새잎을 펼치려는데/펼쳐내면 빛자루인 양 커질 것이니/탁물(托物)이란 대인들이 합촌 바였네" 여름날 파초가 무성한 녹음을 이루어 그들의 시원함을 배풀 듯이 군주가 되면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김중서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저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에서 "시 가운데 탁물(托物)이란 마음이 지향하는 자세를 사물의 속성에 미루는 것으로 정초는 탁물을 파초에 두어 자신의 수양과 지혜의 자료로 삼았다"고 해석한다.

정초대왕은 그 마음을 담아 '파초

도'(보물 제743호)를 그린다. 물결범으로 처리된 파초의 줄기, 농담을 달리하면서 먹으로 표현한 날따란 잎새, 잎새의 꼬불꼬불한 윤곽선 등에는 필법과 묵법에 관한 정초대왕의 깊은 터득이 드러나 있어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경 없이 주제만을 부각시킨 시각, 파초와 바위가 이루는 조화와 구성미는 대왕의 수준 높은 회화미를 보여준다.

6·4 지방 선거가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은 저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포부와 함께 새 시대 리더를 약속하고 있다. 영화 '역린'에서 정초대왕이 '중용'을 인용하며 강조한 바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대목이 의미 깊게 새겨지는 때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광주시장 당선자 새벽청소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11일 새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인근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도심 청소를 하고 있다.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 첫 업무보고

민선 6기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위원장 송인성)가 11일 광주시장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시장 전

준비위는 '업무 보고'라는 단어 대신 '업무 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송인성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광주시 오형국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전면에 대한 업무를 공유했다.

윤장현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사람의 존엄, 생명 중심, 삶의 철학과 시민의 민생문제 등을 항상 놓치지 않고 바르게 시장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을 생각하고 공직자와 준비위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감동의 파트너로서 시장 업무 공유 시간을 함께 해 좋은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인성 위원장은 "광주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테니 여러분들이 윤 당선자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업무 공유는 이날 복지건강국·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인권담당관실·환경생태국·상수도사업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2일에는 문화관광정책실 등 7개 실·국, 13일에는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과의 업무 공유 시간이 이어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광영암군향우회 제64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주 아이리스 웨딩홀 (1층)

취임회장 조성희
(미암면)

수석부회장 박종민
(군서면)

감사 배귀대
(시흥면)

감사 박순종
(도포면)

사무총장 김광만
(도포면)

총무국장 양인기
(도포면)

재무국장 류인안
(신북면)

조직국장 이창진
(영암읍)

문화국장 최규성
(덕진면)

대외협력 교류국장 박미석
(군서면)

체육국장 위성운
(학산면)

홍보국장 김윤범
(덕진면)